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6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만인의 의원되시는 주님께서서

저와 함께하셔서

암이 낫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크고 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 신 동 희 -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우며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정성과 열심을 쏟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이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렵게 운영하던 사업장과 상가를 저희 부부가 바라던 대로 잘 정리하고 팔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보다 마음 편히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저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열심히 예배중심, 교회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영예로운 구역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전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을 손길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와 구역장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여성봉사연합회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불신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두 번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없지 않았지만 그럴 때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면 주님께서 신령한 위로를 베푸시고 새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보람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더니 2019년 10월에 드린 임직예배에서 서리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받음으로 더 영광스럽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친정어머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고 1년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시던 어머니가 제 곁에 안 계시는 지금 제 마음이 매우 허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찬송가 460장) 이 찬송가를 어머니께서 생전에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면 눈물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런 저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없이 살 것 같았는데, 그런 저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바쁜 조카를 대신하여 제가 두 손주를 일 년 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살이 많이 빠지고 자주 감기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갱년기가 와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남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작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내과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가슴에서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1cm인데 모양이 좋지 않다고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3일 후에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검진을 받고 빨리 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으로 대학병원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바로 예약을 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한 바로 그날 하루 동안에 CT, MRI, 유방초음파 검사 등

모든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본 교수님이 빨리 발견했다며 운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의 치료를 도와주셨습니다.

11월 5일에 입원을 하고, 이틀 후인 7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 41:13) 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며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바라던 대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교수님이 암의 크기가 1.3cm이므로 예방 차원에서 항암 4번과 방사선 19번 치료를 하자고 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약 5:15)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데, 저는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4번의 항암 치료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3주 간격으로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이어서 그 한 달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한 차례씩 병원에 다니면서 19번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5일 진료에서 교수님이 ‘이제는 괜찮다’며 7월 9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뿔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전과 다름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기에 열심히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워서 다시 여성봉사연합회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봉사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가면서 전에는 예사로 보아 넘기던 많은 것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 연약한 저를 위해 염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교구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늘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과 가족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해 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9단원 : 성도의 삶)

(제52과) 열매맺는 삶

- 본문 : 요한복음 15:1-16
- 요절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 찬송 : 456장(새찬송가 430장), 은혜와진리찬양 174장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지들인 성도들을 통하여 맺혀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야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 밖에 거하면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만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공과에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운 참 포도나무로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세주에 대하여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요 1:14).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요 14:6).

예수님만이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 외에 달리 인류를 구원할 구주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요 10:8)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처럼,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위하여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가꿀 뿐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됨을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고전 3:6,7).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히도록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주듯이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성도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잘못된 습성들과 죄악을 회개케 하사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더 과실을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악을 회개치 않고 교회를 훼파하며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듯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제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또한 이런 가지들을 제함으로써 남은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힙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은 그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원 동지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반면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내버려져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스스로 애쓸 필요가 없으며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저절로’라는 표현은 가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참 포도나무에게 거름과 물을 공급해주는 수고를 하며 참 포도나무 역시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가지들에게 공급해 주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의 역량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야 열매를 맺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외관상으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오히려 포도나무 밖에 거함같이, 우리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 버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성도들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착념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이단사설과 불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길이 됩니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요 15:12).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므로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들을 그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히되 언제라도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십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명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